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과
추세분석 연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목 차

제목 차례

I. 들어가며	1
II.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2
1.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GII)	3
2.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5
3. 종합	7
III. 20대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사회경제적 현황	9
1.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	10
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15
3. 성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 추이	17
IV. 나가며	21

표 목차

〈표 2-1〉 한국의 GII 수준 추이	4
〈표 2-2〉 국제성평등 지수별 특성 및 현황	7
〈표 3-1〉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 ‘전체 집단’과 ‘20대 집단’ 비교 ..	10
〈표 3-2〉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비교 ..	12

그림 목차

〈그림 2-1〉 한국의 GII 영역별 점수 변화, 2014-2022	5
〈그림 2-2〉 한국의 GGI 영역별 점수 변화, 2006-2022	6
〈그림 3-1〉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남녀평등’): 전체와 20대 비교 ..	11
〈그림 3-2〉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남녀평등’): 20대 남녀 비교 ..	13
〈그림 3-3〉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여성에게 불평등’)	13
〈그림 3-4〉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남성에게 불평등’)	14
〈그림 3-5〉 20대 남녀 고용률 변화 추이(2000~2022)	16
〈그림 3-6〉 30대 남녀 고용률 변화 추이(2000~2022)	17
〈그림 3-7〉 15~29세 남성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2017~2023)	19
〈그림 3-8〉 15~29세 여성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2017~2023)	20

지표와 데이터로 본 젠더 갈등

김수정(강남대학교)

I. 들어가며

젠더는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젠더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사회 갈등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주축이 되었던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에 가려져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으로 확장된 젠더 갈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점차 정치 영역을 필두로 한 오프라인 영역으로까지 퍼져나갔으며, 갈등을 넘어 무분별한 ‘여성혐오’와 ‘남성 혐오’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2015년 여성혐오를 그대로 남성에게 돌려준다는 ‘미러링’을 사회 운동 전략으로 삼았던 여초 사이트 메갈리아(메르스+이갈리아)¹⁾의 등장,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18년 홍대 남성 누드크로키 몰카 유출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에 항의하는 성(性) 편파수사 규탄시위(일명, 해화역시위), 그리고 2019년 이수역 폭해 사건 등 이 시기에 발생한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도화선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정치 영역에서 불거진 ‘이대남-이대녀’ 논쟁은 특히 지금의 젠더 갈등이 20대라는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갈등 양상을 동시에 띄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론>에서는 ‘2023년 젠더인식조사: 젠더갈등과 성차별 인식’ 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 ‘메갈리아’라는 이름은 디시인사이드 소속의 ‘메르스 갤러리’의 이용자들을 노르웨이의 여성주의 소설인 <이갈리아의 딸들>에 빗대 표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6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17~29세 중 남녀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7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젠더갈등이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영역이며, 특히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더갈등 논란은 ‘대한민국은 양성평등 후진국인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는가?’ ‘20대 남성들은 역차별 받고 있는가?’ 등 여러 민감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성 편견 및 성 불평등 문제를 검토한 후, 두 가지 국제 성평등지수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20대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그리고 ‘성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 변화 추이’의 세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II. 국제 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성에 대한 편견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이다. 2023년 6월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이 발간한 젠더사회규범지수(GSNI)²⁾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 젠더사회규범지수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지, 대학 교육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한지 등 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묻는다.

2) 젠더사회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

76개국을 대상으로 젠더사회규범지수를 평가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성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을 향한 인식 개선은 전반적으로 아직 멀었다고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세계인의 절반은 대통령이나 총리 등 정치 지도자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으며, 기업 임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4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는 25%에 달하는 사람들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지구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성 편견 문제는 여러 국가와 사회들에 성 불평등과 성 차별, 나아가 젠더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성 편견과 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내의 실질적인 성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작업은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된다. 이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국제 성평등지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성평등지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를 들 수 있다. 이 두 지수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대한 매우 상반된 순위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각 지수를 근거로 ‘한국은 성평등 후진국’이라고 보는 입장과 ‘한국은 성평등 선진국’이라고 보는 입장이 동시에 제기되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두 가지 지수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알아보자.

1.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는 2010년부터 매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발표된다. 이 지수는 1995년 이래 발표되었던 GDI³⁾와 GEM⁴⁾을 대체하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GII는 한 사회에서 성평등이

3) 남녀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이루어질 때 ‘인간개발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불평등은 인간개발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GII는 생식건강(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노동참여(경제활동 참가율) 등 3개 영역과 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상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이 지표들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GII에 따르면 한국은 인간개발을 성취함에 있어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1>은 한국의 GII 수준 추이를 보여준다.

| 표 2-1 | 한국의 GII 수준 추이

연도1)	순위	점수2)	생식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5)		경제활동참가율6)	
			(명)3)	(명)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2	15/191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20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19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18	10/189	0.063	11	1.6	17.0	89.8	95.6	52.2	73.2
'16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15	23/188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14	17/187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13	27/186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11	11/187	0.111	18	2.3	14.7	79.4	91.7	50.1	72.0
'10	20/169	0.310	14	5.5	13.7	79.4	91.7	54.5	75.6
2010-2022 점수 변화		0.243↓	3↓	3.3↓	5.3↑	3.7↑	1.4↑	1.1↓	3.2↓

주: 1) 2012년과 2017년 보고서는 미발간, 2021/2022년 보고서는 통합 발간되었음

주: 2) 점수는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까지의 범위를 가짐

주: 3)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주: 4)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UN의 출산율 전망치 활용)

주: 5)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비율(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5세 이상 중, 중등 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인구 비율

주: 6)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4)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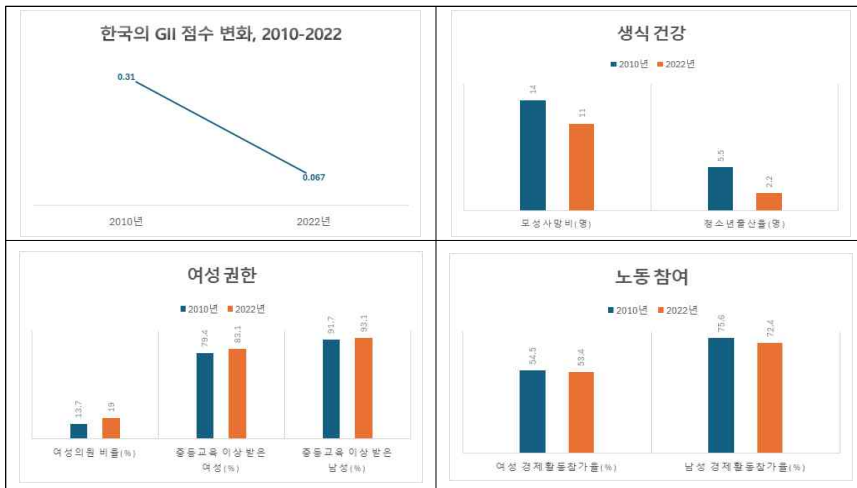
2022년 발표된 한국의 GII는 0.067점이며, 191개국 중 15위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발표된 한국의 GII 점수인 0.064점과 비교해 볼 때 성불평등이 약간 증가했지만, 2010년에 비해 점수와 순위 모두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

2010년에서 2022년 사이 GII 변화의 추이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모성 사망비는 2010년 14명에서 2022년 11명으로 3명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청소년 출산을 역시 5.5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였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 인구(%)도 2010년 대비 2022년의 수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의 남녀 격차는 2010년 대비 2022년 2.3%p 감소(12.3%→10.0%),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는 2010년 대비 2022년 2.1%p 감소하였다(21.1%→19.0%).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10년 대비 2022년 남녀 모두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여전히 19.0%의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 또한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지표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그림 2-1 | 한국의 GII 영역별 점수 변화, 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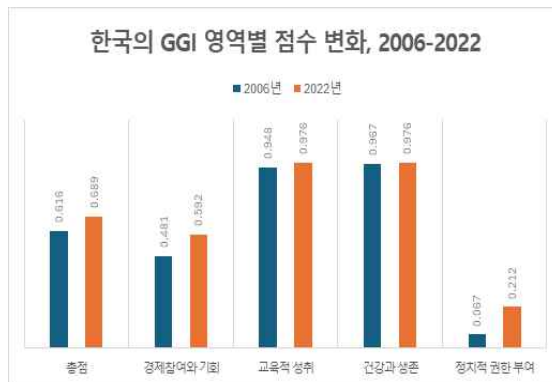


2.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다음으로 살펴볼 국제성평등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이다. 이 지수는 ‘사회 발전이 없는 경제 발전은 지속될 수 없고, 경제 발전이 없는 사회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성평등 문제에 접근한다. 이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준(level)’보다 ‘격차(gap)’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즉, GGI는 한 사회가 제공하는 자원에 접근함에 있어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성별 간 차이에 주목한다. 따라서 GII는 남녀 간의 ‘차이(격차)’가 작을수록 해당 국가에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여한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 등 4개의 영역과 1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상세한 내용은 [부록2] 참조). 아래의 <그림 2-2>는 한국의 GGI의 영역별 점수와 순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GI 점수는 0.689점으로 전체 146개국 중 99위다. 전년도에 비해 3계단 상승했지만(102위→99위), 여전히 매우 낮은 순위다. 이는 앞서 GII에 따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191개국 중 15위였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GGI 측면에서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를 차지해 성격차지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 그림 2-2 | 한국의 GGI 영역별 점수 변화, 2006-2022



영역별로 보면 2022년은 건강과 생존 분야가 52위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72위로 2021년에 비해 4개 순위가 하락하였다. 교육적 성취 분야는 97위로 2021년에 비해 7개 순위가 상승하였고, 경제참여 및 기회 분야는 115위로 2021년에 비해 8개 순위가 상승하였다. GGI는 점수가 1이면 완전평등상태이고 0이면 완전불평등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 영역이 동일하게 0.976점으로 완전평등상태에 가깝다.⁵⁾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인 0.592점에 그치고 있으며, 순위 측면에서도 115위에 머물러 우리나라의 여러 영역들 중 성격차가 매우 높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물론, 2006년의 0.481점과 비교해 0.105점이 더 높아졌지만 순위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낮아졌다(96위→123위). 이 결과는 해당 영역에서 한국의 성평등 개선 속도가 타국가들에 비해 늦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권한 부여 영역의 점수는 2006년 0.067점에서 2022년 0.212점으로 크게 상승했고, 순위 역시 84위에서 72위로 12개 순위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점수가 매우 낮고, 4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앞서 GII 지수에서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3. 종합

아래 <표 2-2>는 앞서 살펴본 GII와 GGI의 특성 및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기 다른 기관이 각기 다른 지수 구성요소들을 토대로 매우 상이한 결과값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선진국일까 후진국일까?

세간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둘 중 어느 것이 맞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GII와 GGI 두 지수가 성평등에 접근하는 목적과 측정 방법이

5) 그럼에도 교육적 성취 및 건강과 생존 영역의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영역의 성격차가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국제성평등지수는 지향하는 성평등 달성 목표도 다르고, 성평등을 측정하는 영역과 개별 지표들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성평등지수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상이하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표 2-2 | 국제성평등지수별 특성 및 현황

지수명	성불평등지수(GII)	성격차지수(GGI)
발표기관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경제포럼(WEF)
지수 구성요소	모성사망비율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점수	0.067점(0이면 완전 평등)	0.689점(1이면 완전 평등)
순위	15위/191개국	99위/146개국
발표연도	2022년	2022년

주재선(2021: 57)은 두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간개발과정에서 성불평등은 낮지만(GII), 참여, 기회, 배분 영역에서는 성 격차가 매우 큰 국가(GGI)”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이 같은 결론은 국제성평등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해준다.

우선, GGI는 말 그대로 남녀 간 ‘격차’(Gap)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 값에는 개별 국가의 발전 수준은 반영돼 있지 않다. 단지 조사 대상 국가 내에서 남녀 간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이 결과만 가지고 여성 인권의 ‘절대적 수준’을 파악한다거나 국가 간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⁶⁾ 따라서 이 지표는 한국이 어느 측면에서 성 격차가 크고 또 어느 측면에서

6)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10대 지표에 UNDP의 GII가 젠더갈등 양태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선정된 배경에 이러한 이유가 자리한다. 국가발전과 안정에 기반이 되는 사회통합은 단순히 남녀 간의 격차 자체만을 줄이는 것에 있지 않으

적은지 세부 항목별로 봐야한다.

반면 UNDP의 다른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지위만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된 GII는 성별 격차와 여성 처우의 절대적 수준을 함께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GII의 대표적인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여성 인권 측정에 주요한 지표가 되는 모성 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녀 간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여성에게 특화된 이 지표는 고도로 발전된 한국의 의료 및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 한국 성평등 순위가 높게 측정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수 값 중 경제활동영역지표가 한정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III. 20대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사회경제적 현황

2023년 한국의 젠더갈등은 20대 청년세대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남과 이대녀의 격전(激戰)’으로도 묘사되는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현재 20대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현황을 검토하는 일이다.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차별과 분노, 여성 및 여성우호적인 사회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20대 남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는 여성의 상황과 비교할 때 어떠한 수준인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수준에 대해 주관적

며, 절대적 수준의 교육정도 및 경제력을 확보하고 제고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GGI에서 한국이 낮게 나오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0.592, 115위)는 라오스, 브룬디, 기니, 베닌, 잠비아 등의 저개발국가에서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면 GII 점수가 전반적인 젠더 갈등을 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한다.

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성불평등과 성격차는 남녀가 느끼는 성평등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불평등 수준이나 격차 정도가 ‘곧’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사회 전반을 비롯해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20대 남녀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평등하다’고 느끼는지 혹은 ‘여성에게’ 또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1.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

15세 이상 남녀 8,358명을 설문조사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성차별 현실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아래의 <표 3-1>은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에 대한 응답을 ‘전체 연령대 집단’과 ‘20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정리한 것이다. <그림 3-1>은 이 중 ‘사회 전반’에서의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전체 연령대와 20대 응답자의 응답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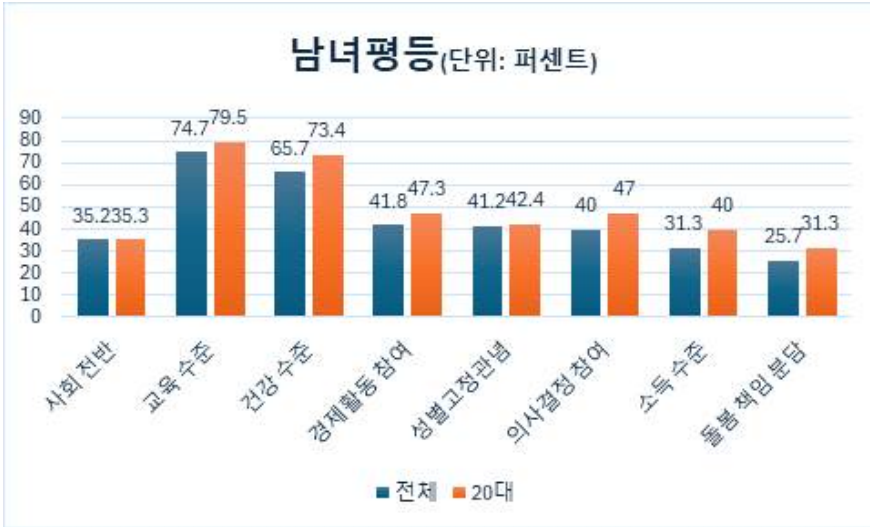
| 표 3-1 |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 ‘전체 집단’과 ‘20대 집단’ 비교

단위: 퍼센트(%)

평등 항목	전체			20대		
	남녀평등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사회 전반	35.2	53.1	11.7	35.3	50.0	14.7
교육 수준	74.7	20.4	4.9	79.5	13.3	7.2
건강 수준	65.7	20.4	14.0	73.4	14.0	12.5
경제활동 참여	41.8	50.6	7.5	47.3	44.0	8.7
성별고정관념	41.2	48.5	10.3	42.4	42.8	14.9
국회, 행정부 등의 의사결정 참여	40.0	53.6	6.4	47.0	46.2	6.7
소득 수준	31.3	61.3	7.4	40.2	52.8	7.0
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 책임분담	25.7	67.2	7.1	31.3	62.7	6.2

출처: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 그림 3-1 |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남녀평등’): 전체 연령대와 20대 비교



출처: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평등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남녀가 ‘평등하다’는 답변은 15세 이상 전체 응답자 8,358명 중 약 35.2%를 차지한다.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응답자들만이 우리나라를 남녀평등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전반적인 남녀평등 수준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교육 수준(1위), 건강 수준(2위), 경제활동 참여(3위), 성별고정관념(4위), 국회, 행정부 등의 의사결정 참여(5위), 소득 수준(6위), 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 책임 분담(7위)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중 남녀평등에 대한 답변 비율이 각각 74.7%와 65.7%를 차지한 교육 수준 및 건강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에 못 미치는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은 31.3%의 응답자가, 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 책임 분담은 25.7%의 응답자만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특히 성차별이 심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대의 남녀평등 인식은 어떨까? 전체 8개 평등 항목에 대해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전체 집단 대비 20대 집단에서 일관되게 더 높은

비율로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상응하게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20대에서 일관되게 낮은 비율로 나타난다. 건강 수준, 소득 수준, 돌봄 책임 분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등 항목에서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20대 여성과 남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20대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볼 때, ‘남녀가 평등하다’는 응답은 8개 모든 평가 항목에서 20대 남성의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표 3-2>,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참고). 사회 전반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20대 여성(22.4%)과 20대 남성(46.8%)의 응답률 차이는 2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평등인식 정도가 높은 교육 수준 및 건강 수준 차원에서도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더 ‘평등’하다고 보고 있으며, 20대 여성이 높은 비율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경제활동 참여’, ‘성별고정관념’, ‘국회, 행정부 등의 의사결정 참여’, ‘소득 수준’, ‘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 책임 분담’에 대해서도 20대 남성은 최소 약 13%p(경제활동 참여)에서 최대 32.6%p(소득 수준) 더 남자가 ‘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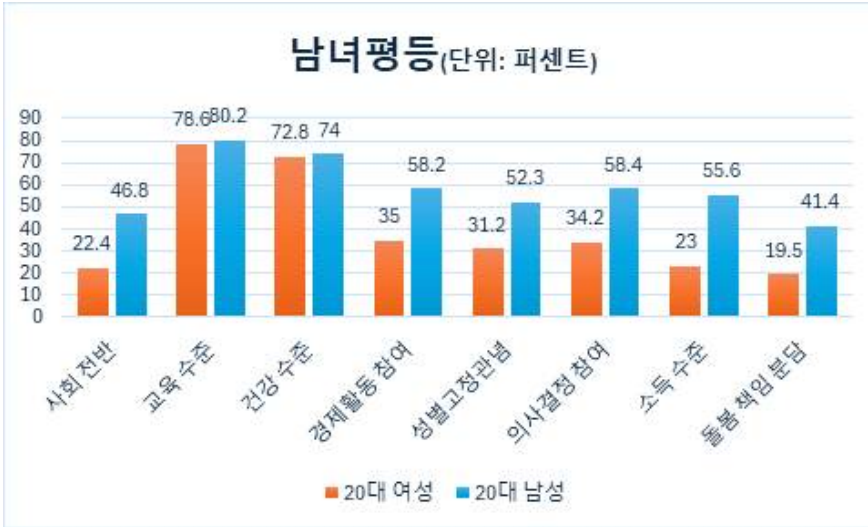
| 표 3-2 |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비교

단위: 퍼센트(%)

평등 항목	20대 여성			20대 남성		
	남녀평등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사회 전반	22.4	73.4	4.3	46.8	29.2	24.0
교육 수준	78.6	19.4	2.0	80.2	7.9	11.9
건강 수준	72.8	19.8	7.4	74.0	8.9	17.0
경제활동 참여	35.0	59.2	5.8	58.2	30.5	11.3
성별고정관념	31.2	61.9	6.9	52.3	25.8	21.9
국회, 행정부 등의 의사결정 참여	34.2	62.4	3.4	58.4	31.9	9.7
소득 수준	23.0	72.1	5.0	55.6	35.7	8.8
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 책임 분담	19.5	75.5	5.0	41.4	51.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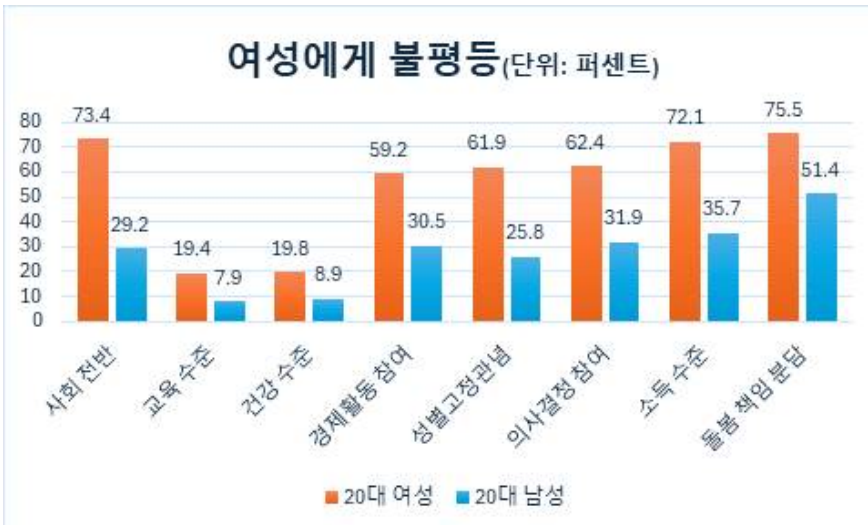
출처: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 그림 3-2 |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남녀평등’): 20대 남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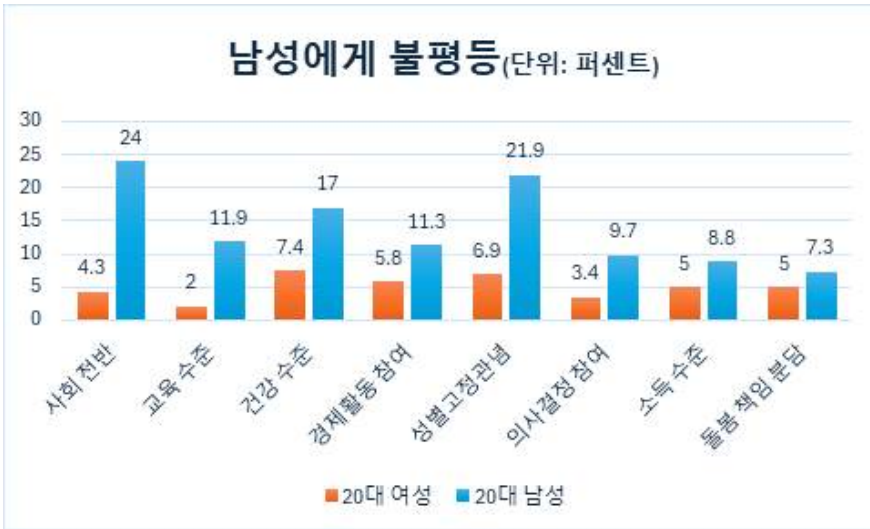
출처: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 그림 3-3 |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여성에게 불평등’): 20대 남녀 비교



출처: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 그림 3-4 |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남성에게 불평등’): 20대 남녀 비교



출처: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특히 20대 남성은 ‘남녀평등’ ‘여성에게 불평등’에 비해 전반적인 응답률은 낮지만, 20대 여성에 비해, 그리고 다른 연령대의 남성 집단에 비해 각각의 평등 항목에서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24%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회 전반 항목의 경우, 전체 남성의 16.9%, 30대 남성의 19.3%, 40대 남성의 13.9%, 50대 남성의 15.6%, 60세 이상 남성의 14.0%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교육 수준 측면에서, 20대 남성의 11.9%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 남성은 6.2%, 30대 남성은 4.3%, 40대 남성은 6.2%, 60세 이상 남성은 4.4%만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경제 활동 참여에 있어서도, 전체 남성의 9.2%, 30대 남성의 9.3%, 40대 남성 7.8%, 50대 남성 10.3%, 60세 이상 남성 8.9%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 남성은 11.3%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응답률 차이의 폭이 가장 컸던 성별고정관념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남성의 13.4%, 30대 남성 15.6%, 40대 남성 11.7%, 50대 남성 11.5%,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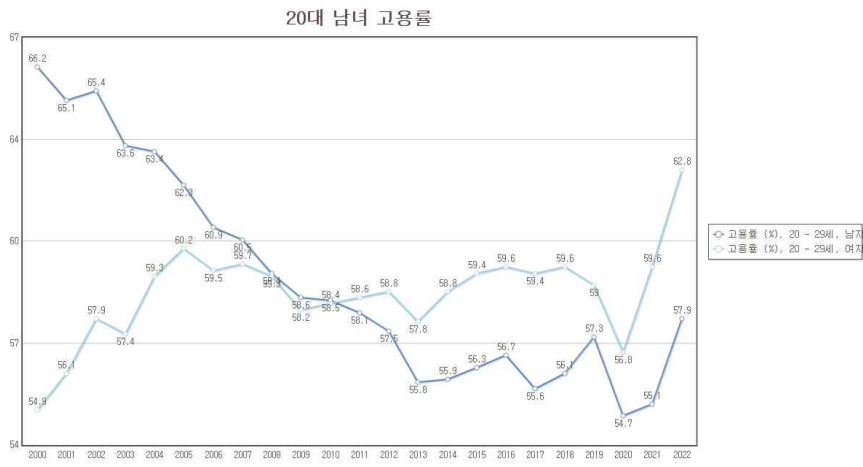
남성 8.8%만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20대 남성은 무려 21.9%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또한, 앞선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응답률은 높지 않지만 의사결정 참여, 소득 수준, 돌봄 책임 분담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는 대신, 더 높은 비율로 '남녀가 평등'하다고 답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2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녀평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지만, 20대만 따로 떼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볼 경우 20대 여성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고, 남성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서로 간 남녀평등에 관한 의견 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데 더 많이 동의하는 반면, 20대 남성은 그에 반대하며 나아가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을 내 놓아 20대 남성 스스로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이번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20대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확인해 보자. '일자리'의 문제는 특히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20대 남녀가 젠더갈등을 벌이는 격전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하부구조로 알려져 있다. 우선, 한국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남성의 고용률은 71.5%이고, 여성의 고용률은 52.9%이다.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1%보다 크게 낮다. 물론 이 수치는 전체 연령을 기준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20대의 경우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어떨까?

| 그림 3-5 | 20대 남녀 고용률 변화 추이(200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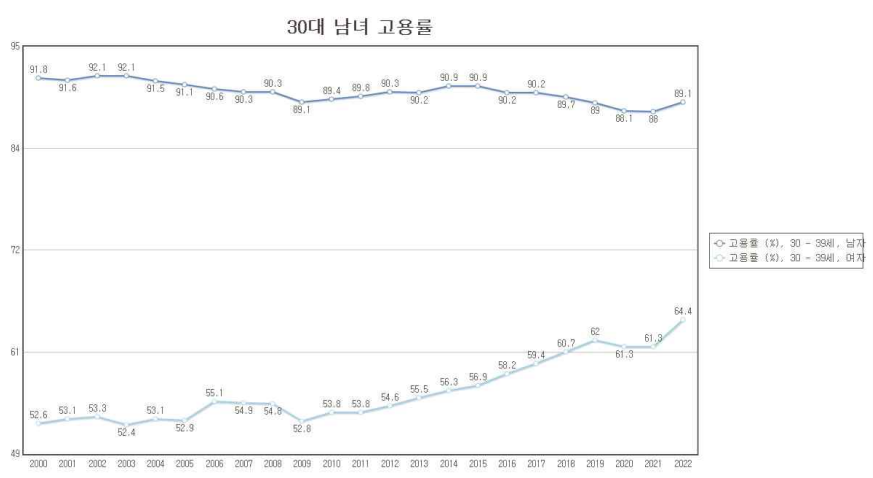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는 2000~2022년 20대 남녀의 고용률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할 때, 20대 남성은 2000년 66.2%에서 2022년 57.9%로 8.3%p 떨어졌으나, 20대 여성은 같은 기간 54.9%에서 62.8%로 7.9%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는 20여 년 전에 비해 한국 20대 청년 남성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 격차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된다.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고용률에서의 성별 격차는 11.3%에서 4.9%로 줄었고,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아졌다. 20대 고용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역(逆) 성별격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분노가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률 자체와 더불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여건이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30대에 도달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흐름 또한 20여 년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 3-6>은 30대 남녀의 고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 91.8%에서 2022년 89.1%로 2.7%p 하락했고,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52.6%에서 64.4%로 11.8%p

상승했다.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90%를 조금 밀도는 수준이다. 이와는 달리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60%를 조금 넘긴 수준이며 20대 남녀와 크게 다르지 않다.

| 그림 3-6 | 30대 남녀 고용률 변화 추이(2000~202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는 많은 여성들이 30대에 들어서면 직장을 떠나게 되고, 여전히 '경력단절'에 직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경제적 자립과 취업 욕구의 증대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30대에 이르면 성별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삶 전체를 고려할 때 구조적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20대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상황이 여성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할 근거는 없다(신경아, 2023).

3. 성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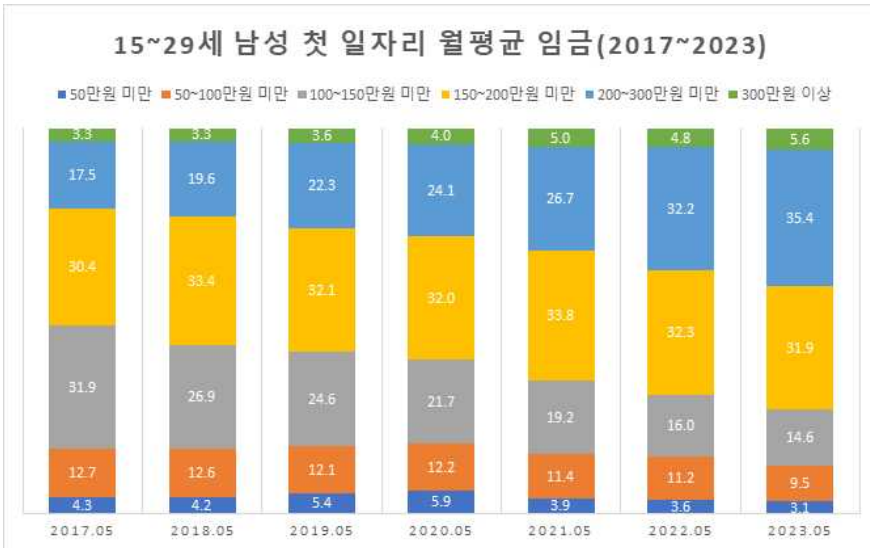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별 임금격차다. 성별 임금격차는 성차별의 대표적인 근거로 꼽힌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 차이가 남성의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남성의 중위소득이 100만원이고 여성의 중위소득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남녀 간 임금격차는 40%이다. 성별 간 소득격차(40만원)가 남성 중위소득(100만원)의 40%이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 17%이며,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1.1% 적은 임금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은 셈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에 가입한 이래 27년째 꼴찌다.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격차가 높은 일본과 비교해도 10%p 내외의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7>과 <그림 3-8>는 2017~2023년 7년간 15~29세 남성과 여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3.3%에서 5.6%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7.5%에서 35.4%로,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0.4%에서 31.9%로 증가했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31.9%에서 14.6%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7%에서 9.5%로 감소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늘었고, ‘300만원 이상’과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소폭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7 | 15~29세 남성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201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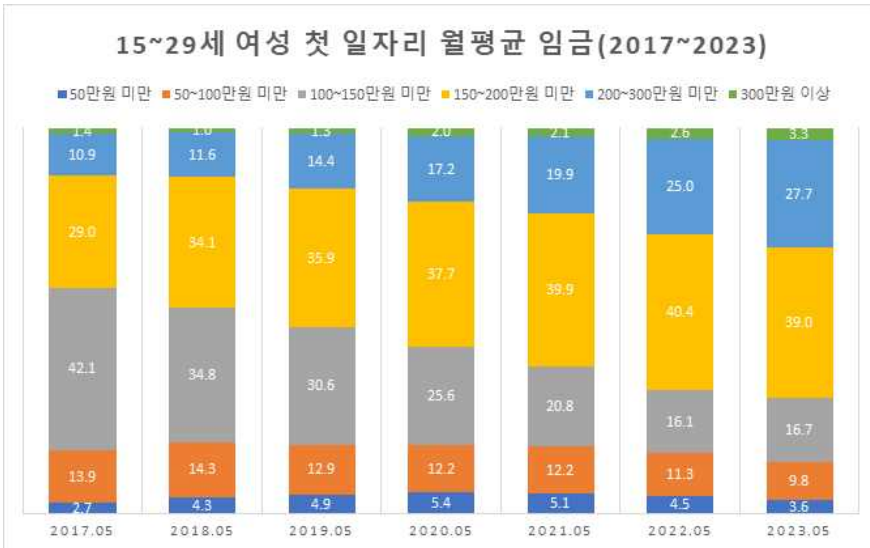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에 비해 여성은 ‘300만원 이상’은 1.4%에서 3.3%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0.9%에서 27.7%로,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29.0%에서 39.0%로 늘었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42.1%에서 16.7%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3.9%에서 9.8%로 줄었고, ‘50만원 미만’은 2.7%에서 3.6%로 늘었다.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여성들이 39%로 증가하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여성들도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수준이 모두 상승했지만, 남성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임금 집단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임금 집단에 39%가 몰려 있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주로 최저 임금 수준 주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3-8 | 15~29세 여성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2017~202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와 관련해 몇몇 연구들은 20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별’ 자체가 여성의 임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019년 김창환 캔자스대 교수 등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분석해 동일 대학, 동일 전공 출신이라도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불이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3세에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소득 불이익은 동일 연령 남성에 비해 평균 14.6%인데, 29세에는 이 수치가 21.8%로 커졌다. 이 연구는 성별 소득 격차의 절반 이상이 경력단절 이전에 이미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성차별 시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경향신문, 2023/02/23).

이와 더불어 2017년 유정미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대학을 졸업한지 24개월 미만인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여성 대졸자들은 남성에 비해 약 20%p 낮은 임금을 받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력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전문대를 졸업한 남성의 임금보다 낮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에

학력보다 성별 효과가 더 작용한다는 분석이다(경향신문, 2023/02/23).

IV.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젠더갈등 문제와 관련해 제언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을 진단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그에 유리한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취해 제시하기보다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해당 지표의 내용과 수치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추이를 바라보며 향후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건설적인 논의를 생성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수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평등지수들에 대한 국민적 수준의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되듯, 첨예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성평등지수와 지표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성평등 지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2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젠더갈등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젠더갈등을 ‘남과 여’의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세대적 측면에서의 접근’ 그리고 ‘시대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갈등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적 측면에서 ‘왜’ ‘어떤 부분에서’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지, 나아가 서로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그간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의 젠더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과

구조적 상황이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예컨대, 오늘날의 20대 남녀는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동등한 수혜를 누린 세대이며,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한경쟁 논리를 체화하여 끝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학점관리, 스펙 쌓기 투쟁을 벌여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 남성 한 명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과거 아버지 세대와 달리 지금의 20대 남성은 동년배 여성들과 경쟁하고 있다. 앞선 세대가 누렸던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여성혐오 문화나 성차별에 대항할 지적 수준 및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동세대 여성들과도 필연적인 갈등상황에 놓여 있다(정고운, 2021). 이러한 20대 청년세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젠더갈등 해소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성격차와 젠더갈등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성격차 수준이 곧 젠더갈등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하듯, 갈등은 주관적인 감정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앞서 살펴본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존하는 조사자료만으로는 젠더와 세대,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을 상세하게 포착해 내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앞서,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FGI와 같은 질적조사가 수행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젠더갈등의 양상을 더욱 정치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섬세한 질문문항들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사회에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들어, 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들어 넘겨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상황과 감정을 토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저 ‘통계가 이렇다’는 결과를 들이미는 대신 2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역차별적 상황이 한시적이며 길게 보았을 때 다시 재역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좀 더 긴 시각으로 정리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팩트’가 그러하다는 근거로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편들기보다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의 본질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존, 공감, 그리고 협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20대에서 특히 격화되고 있는 젠더갈등과 성격차는 ‘20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20대 청년의 취업이나 임금구조에 있어 이들을 취업시장에서 선발하고 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기성세대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성별고정관념은 20대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많은 부분 현재의 젠더갈등이 격화된 데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해당 문제를 자극하고 소위 ‘남녀 갈라치기’ 등을 통해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주체’를 묻는 질문에 언론(78.4%), 정치인(77.6%), 여초 커뮤니티(70.9%), 남초 커뮤니티(68.0%), SNS(63.2%) 등을 지목했다(국승민 외, 2022: 126).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젠더갈등의 심각성 여부와 별개로, 언론 및 정치인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혐오 발화를 이십대 남녀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과잉 재현해 오히려 젠더갈등을 실재보다 왜곡해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오늘날 가짜뉴스의 범람과 알고리즘을 통한 편향된 기사 소비가 만연한 상황에서 실제 20대 남녀의 목소리를 제거한 채 ‘이대남’ ‘이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혐과 남혐의 선정적인 대립구도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제제가 필요하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청년이 제안하는 ‘젠더갈등 해소방안’ 공모전을 열고, 젠더평등 사회를 위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청년젠

더 공감 특위 정책제안 및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교과목 개발 공모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은 일회성을 떠는 정책제안 및 토론회를 넘어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청년 젠더 인식격차 해소(원인 분석, 젠더의식 개선 등), 젠더정책 혁신(방향 재정립, 평등한 일터 및 삶터), 새로운 젠더문화 등 가치 있는 작업들을 교육제도라는 틀 안에서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국내문헌

- 경향신문. 2023. [‘27년 풀지’ 성별임금격차] 여성이 평생 못넘는 벽
‘28~30세 남성’(2023/02/23)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2230550011>
- 국승민·김다은·김은지·정한울. 2022. 『20대 여자』. 참언론 시사IN북.
- 김기동·정다빈·이재묵. 2021.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
정치학회보』 55(4): 5-42.
- 신경아. 2023.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동녘.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2016~2021)
- 이혜수. 2023. “한국사회의 젠더갈등과 감정동학: 2022년 대선 여성가족
부 폐지 담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24(1): 115-136.
- 정고운. 2021. “90년대생 남자와 여자는 왜 불공정을 이야기하나?” 김석호
(편)(2021).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241-289쪽). 서울: 시공사.
- 주재선. 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통계 프리
즘』 (겨울호). 통계청.
- 홍지아. 2022.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
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99-155.

국외문헌

-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
UNDP(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UNDP(2018), Human Development Report 2018.
UNDP(2016),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UNDP(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UNDP(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2.
Payscale Research(2023), 2023 Gender Pay Gap Report(GPGR)

[부록 1]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 (차원)	지표	내용
생식건강	모성 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UN의 출산율 전망치 활용)
여성권한	여성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참여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UNDP(2022), Humans Development Index 2021/2022, p. 295

[부록 2] GGI 지표구성

하위지수	지표	내용
경제참여와 기회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유사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	경영자 의견조사
	남성 대비 여성의 추정소득 비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비농촌 임금 성비, 성별인구의 결합으로 산정
	남성 대비 여성 행정·관리직 비	성별 임금근로자 중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성비
	남성 전문·기술직 대비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	성별 임금근로자 중 전문·기술직 성비
교육 성취도	남성 대비 여성 문해율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남성 대비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	$(6-11\text{세 재적 학생수}) / (6-11\text{세 적령 인구}) \times 100$
	남성 대비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	$(12-17\text{세 재적 학생수}) / (12-17\text{세 적령 인구}) \times 100$
	남성 대비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	$(\text{고등교육 재적 학생수}) / (\text{고졸 직후 연령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 \times 100$
건강과 생존	출생성비(여아 대비 남아 출생비율)	출생 시 자녀의 성비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기대수명	건강수명 성비 : 남녀의 건강기대수명의 차이
정치권한 부여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비율의 성비
	남성 대비 여성 장·차관 비율	장관급 남녀의 성비
	(최근 50년 이내) 남성 대비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재직연수의 성비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주재선, 2021에서 재인용)

[부록 3] 한국 GGI의 영역별 점수와 순위 변화

단위: 점수(순위)

연도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
2022	99/146	0.689	0.592(115위)	0.976(97위)	0.976(52위)	0.212(72위)
2021	102/156	0.667	0.586(123위)	0.973(104위)	0.976(54위)	0.214(68위)
2019	108/153	0.672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2018	115/149	0.657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2017	118/144	0.650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34(90위)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	104/134	0.634	0.520(113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2006-2022 점수 변화		0.073↑	0.111↑	0.028↑	0.009↑	0.145↑

주: 점수는 0(완전불평등)에서 1(완전평등)까지의 범위를 가짐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70